

임부의 모유 수유에 대한 태도 유형 분석

정혜경* · 이미라**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모유 수유율은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왔다. 1960년대에 95%였던 모유 수유율은 1970년대에 94%(가족계획 연구원, 1977), 1980년대에는 68.9%(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2)로 감소하였으며, 이러한 감소 추세는 계속되어 1990년에는 모유 수유율이 35.4%(이, 1992)까지 저하되었다.

모유 수유율의 감소는 몇가지 요인과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1983년 한국인구보건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직업여성일 경우 처음부터 모유 수유하기를 꺼려 했으며, 더욱 놀라운 사실은 산전관리 횟수가 많을 수록, 그리고 의사에 의해 분만 개조를 받은 경우일 수록 모유 수유 실천율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모유 수유율이 저하된 이유로는 다수의 요인이 작용된 것으로 발표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의료인들의 모유 경시 풍조와 모유 영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의 부족 등이 중요한 이유로 지적되었다(박, 1982).

또한 가족의 구조가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바뀐에 따라 어머니들이 모유 수유하는 것을 관찰할 기회가 거의 없으며, 학습 대상이 되는 역할 모델이 거의 없다고 지적되었듯이(Hall, 1980), 혼전 여성들이 모유 수유에

대한 정확한 지식 습득의 기회가 적고 성장 과정에서 어머니들이 자연스럽게 모유를 먹이는 장면을 보기가 힘들어져 자연스런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이들이 향후 모유 수유 실천을 해야 할 경우 수유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되고 모유 수유 과정에서 겪게 되는 어려운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여 결국 포기하게 된다고 한다(Ellis, 1983).

이와같이 모유 수유에 대한 학습과 정보 제공이 충분하지 않은 반면에 분유 회사의 과대 선전과 분유 건본의 무료 제공, 분만 후 산모와 신생아를 격리 시키는 병원 제도, 산모의 취업에 따른 모유 수유의 어려움등도 모유 수유율을 감소시키는 요인이라고 보고되고 있다(김, 1990; Ebrahim, 1979).

이(1992)는 모유 수유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유를 먹이겠다는 확고한 신념과 모유의 우수성에 대한 인식 및 직장에서의 수유 시설이라고 하였으며, 모유 수유에 대한 신념은 간호사의 모유 수유 권장등을 통해 이룰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모유 수유에 대한 의사 결정 시기가 대부분 임신 전이나 임신 초기에 이루어진다고 하므로(송, 1989) 이를 근거로 산전 관리 기간 동안 교육을 통한 임부들의 인식 태도 변화가 요청되고 있는 바 이를 위하여 모유 수유에 대한 임부들의 태도 유형에 따른 개별화된 간호 중재 개발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본 연구자는 인간의 주관성을 측정하기 위해 고안된 Q-

* 중앙대학교 부속 용산병원 수간호사

**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교수

방법론을 사용하여 임부들의 모유 수유에 대한 태도 유형 분류를 시도하였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모유 수유에 대한 임부들의 태도 유형을 분석, 명명한다.
- 2) 각 유형의 특성에 따라 모유 수유 권장을 위한 교육 전략을 제시한다.

3. 용어의 정의

모유 수유-첨가 식이를 제공하기 전의 기간 또는 첨가 식이는 제공하나 일반식에 전적으로 의존하기 전 기간에 모유를 주된 영양으로 하는 경우를 말한다.

II. 문헌 고찰

1. 모유 수유의 중요성

지금까지 알려진 모유 수유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1) 영양학적인 측면의 장점

모유에는 인체에 필요한 영양소가 골고루 함유되어 있을뿐만 아니라 성분조성은 초유에서 성유에 이르기까지 수유기간에 따라 차이를 보이므로써 아기와 어머니의 요구에 맞출 수 있게 되어 있다(Reeder & Martin, 1987). 또한 신생아의 대사에 적절한 단백질과 양질의 탄수화물을 함유하고 있으며 불포화 지방산의 함량이 높고 철과 적당량의 무기염, 비타민이 충분하며, 유즙내에 있는 고도의 지방 성분이 영아로 하여금 젖을 그만 먹도록 유도하여 비만증을 예방한다(Klaus & Kennell, 1982).

2) 면역 및 항알러지 측면의 장점

모유에는 immunoglobulin, lactoferrin, enzyme, macrophage, lymphocyte, lactobacillus bifidus 등이 함유되어 있어 설사 및 호흡기계 감염을 포함하여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갖게 한다(Cunningham, 1979). 또한 이종 단백질은 생후 6개월간은 후기보다 장관 흡수가 용이하므로 우유 수유를 하는 경우 알러지 반응 발생률이 높다. 이런 이유로 인해 우유단백질은 영아기의 가장 흔한

식품 알러지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Reeder & Martin, 1987).

3) 모아의 심리적 측면의 장점

모유 수유는 모아 사이의 보다 직접적이고 밀접한 생물학적 관계 형성으로 인해 모아 상호작용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있으며(Reeder & Martin, 1987; 방, 1983), Cameron & Hofvander(1976)과 Taggart(1976)에 의하면 모유 수유는 어머니에게 심리적인 면에서 최고의 만족감, 기쁨 가치감을 느끼게 한다고 한다.

4) 기타 장점

모유는 오염위험이 없기 때문에 우유에 비해 안전하며, 항상 적당한 온도로 먹일 수 있으며(Reeder & Martin, 1987), 영아가 빨때 분비되는 oxytocin의 자극으로 자궁수축이 증진된다. 또한 모유 수유를 함으로써 약 8-9개월까지는 자연적인 피임효과를 얻게 된다(William & Jellife, 1972).

또한 Cameron & Hofvander(1976)는 유방암의 발생 빈도는 수유기간이 길고 출생율이 높은 개발도상국에서는 비교적 낮다고 하여 모유 수유가 유방암 발생과 관계 있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모유는 신생아가 성인이 된 후에도 영향을 미쳐 모유를 먹고 자란 사람에게는 비만증, 고혈압, 심질환 등의 성인병 이환률도 낮다고 보고되고 있다(Forman, 1974).

2. 모유 수유의 지속과 관련된 요인

모유의 우수성과 모유 수유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모유 수유율은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이는 여러가지 요인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 1991; Ellis, 1983; Hall, 1980).

구체적인 예를 들면 모유 수유를 희망한다 할 지라도 이를 위한 정보 제공 체계가 미흡하여 대부분의 임부가 육아책이나 잡지, 기타 주위 사람들로 부터 지식을 얻고 있으며(김, 1991), 모유 수유에 따른 어려움에 당면하였을 때 지지자의 격려 부족등으로 이를 쉽게 포기한다고 하였다(조, 1990).

이러한 요인들은 교육을 통해 시정될 수 있는 것이어서 교육을 통한 모유 수유율 증진 방안이 다각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송(1989)에 의하면 대부분의 임부들은 초

유의 면역성과 정서적 유대감, 영양학적 우수성등의 지식 정도는 비교적 높았으나 그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 이처럼 모유 수유에 대한 지식 결여가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신(1985)의 연구 결과 모유 수유에 대한 학습 경험이 있는 집단의 향후 모유 수유 희망율은 61%로 학습 경험이 없는 집단의 4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유 수유에 대한 지식이 모유 수유 실천과 긍정적인 상관성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고 있다(Mackey & Susan, 1981). 임신중 보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연구에서는 모유 수유에 대한 의사 결정 시기가 대부분 임신 전이나 임신 중에 이루어 진다 하여 임부에게 모유 수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정기적인 산전 산후 관리 내용을 바꾼 결과 모유 수유 실천율과 그 기간이 증가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2; Wini-koff & Baer, 1980). 박(1981)의 연구에서도 영아 영양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결과 교육 전 81.9%였던 모유 수유 선호 비율이 교육 후 92%로 증가되었다.

이와같이 모유 수유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의료인들의 무관심은 큰 문제점이 아닐 수 없다. 다수의 연구에서도 지적되고 있듯이 분만 후 산모들이 의료인들에게서 얻는 모유 수유에 대한 지식 습득 및 권장 정도는 한결같이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김, 1991), 특히 경제 성장과 교육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가정에서 분만하는 경우보다 병원 분만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서 본다면 의료인들의 의식 변화는 시급하다고 하겠다(성, 1979).

더우기 대부분의 임부가 산전 관리를 받는 병원에서 교육 받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이는 시간상의 절약과 아울러 교육자에게서 신뢰감과 안정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이 송(1989)의 연구결과 나타났다. Wini-koff & Baer(1980)은 병원에서 출산을 앞둔 임부들에게 의료 전문가가 모유 수유에 대한 교육을 한 결과 모유 수유율이 극적으로 증가되었다고 하였으며 의사나 간호사가 모유 수유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권고하는 태도를 보이면 산모들의 모유 수유를 성공적으로 이끌수 있으며 특히 분만직후 의료인들이 적극적으로 권장할 경우 설령 산모가 수유하는 방법을 잘 모른다 할지라도 모유 수유를 성공적으로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모유 수유 증진을 위한 방법으로 분만 후 모자 동실을 실시한 결과 모유 수유 실천 정도는 모자 동실을 실시하지 않은 집단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으며 모자 동실을 한 경우에 있어서는 퇴원후 모유 수유를 하었

을 때 큰 문제를 경험하지 않았다고 한다(김, 1989; Seehan, 1981).

뿐만 아니라 모유 수유를 시도하거나 지속시키는데 있어서 지지자의 역할 또한 중요한데 여러 선행 연구의 보고에 의하면 모유 수유 권장자 중 남편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Sweeney, 1987) 모유 수유 교육시 남편의 참여는 물론 남학생들에게도 학교에서 모유에 대한 보건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이들이 어려서부터 모유에 대해 올바른 지식 및 태도를 갖도록 해야 하고(송, 1989), 직업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젖을 미리 짜두어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먹이거나 하루에 한 두번만이라도 젖을 직접 빨리도록 하며 기형이 있거나 질병이 있는 아기 엄마에게도 모유 수유 방법을 교육하고 격려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대두되고 있다(Brown, 1985; Henderson, 1978; Janice & Margaret, 1986; Preston, 1991).

현재 우리나라 실정으로는 체계적인 모유 수유에 대한 교육은 병원이 가장 좋은 조건인데, 외국의 모유 수유 권장 활동가운동에는 지역사회의 모유 수유 권장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원 봉사자를 중심으로 "La Leche League"가 발족되어 활동 중이며 더불어 제도적으로 모유 수유 전문 간호사가 모유 수유에 대한 상담과 교육을 담당하고 있고 직장에서도 수유 시설 및 탁아소 설치, 휴직 제도등이 마련되어 있다(한, 1992).

김(1991)은 모유 수유에 대한 교육 내용으로는 모유 생성 과정과 모유의 우수성, 모유 수유를 위한 유두 관리, 유방 마사지 및 수유 시도 시기, 수유방법과 수유간격, 남은 젖 처리방법, 산모의 신체관리, 영양관리, 심리 상태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였고, 김(1984)는 중고등학교에서 모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모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우리나라의 모유 수유율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에서 본다면 우리나라 역시 현재의 수유방법을 개선하여 병원 신생아실에서 무조건 분유를 주지 말고 분만 후 가능한 빠른 시간에 모자 동실을 행하여 산모와 일찍 접촉하게 함으로써 모유 수유율을 높여야 한다고 하였다.

3. 모유 수유에 대한 태도

여성들의 모유 수유에 대한 태도는 여러가지 사회 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아온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모유 수유율은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

는데 이러한 모유 수유 저하 현상을 가속화시키는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박과 권,1991 ; 이,1992 ; 정,1983).

- 1) 분유가 모유보다 영양학적으로 우수하다는 판단 착오로 인공 영양을 선호하게 되었다.
- 2) 여성들의 교육 수준 향상으로 사회 참여율이 증가하게 되었고 더불어 경제적으로 윤택해 지면서 인공 영양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 3) 증가된 병원 분만과 더불어 빈번히 시도되는 제왕절개로 인하여 산모가 신생아에게 모유 수유를 할 기회를 놓치게 되었다.
- 4) 대중매체 수단을 통한 모유 대체식품의 선전 광고가 무엇보다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과대 선전은 일반 대중에게 인공 영양이 건강의 첩경인 양 오인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 5) 모유 수유에 대한 단계적인 교육의 미비로 모유 수유의 우수성에 대한 지식이 부족할 뿐 아니라 모유 수유에 대한 의료 전문인들의 무관심이 인공 영양을 선택하게 한다.
- 6) 어머니들의 신체적인 편안감과 미용을 위해, 그리고 남에게 뒤지지 않으려는 여성 심리가 이에 작용한다. 이(1984)의 연구보고에 의하면 모유 수유에 대한 인식 정도는 모유 수유시 심리적인 유대감과 정서적인 만족감, 초유의 번역성등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였고 인공 수유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여성의 사회 활동 참여시는 불가피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부의 교육 정도가 높고 직업이 있으며 연령이 많을 수록 인공 수유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송,1989 ; 홍,1982).

Eastham, 등(1976)이 보고한 바에 따르면 모유 수유를 시키는 엄마를 볼 기회가 많았거나 자기 자신이 젖을 먹고 자랐다는 것을 아는 지식은 향후 모유 수유 의사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으며, 신(1985)은 미혼여성을 대상으로 그들의 향후 영아 영양 방법을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모유 수유 선택 이유로는 '모유 수유는 애정 결합을 위해 자연스러운 행위'라고 응답한 비율이 44.4%로 가장 높았고 '영양가가 많고 경제적'이라는 의견이 36%, '위생적이고 편리하다'가 2%를 나타내었다. 반면 인공 수유를 시키려는 이유에 대하여는 '아기를 튼튼하게 해준다'가 44.4%였으며 '엄마의 몸매 유지를 위해서'가 18.5%, '모유보다 영양가가 많다'와 '엄마의 사회활동을 위해서'가 각각 14.8%를 나타내었다.

또한 모유 수유 실패 원인으로는 '모유 분비 부족'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정과 이,1983), 정(1982)등은 젖이 부족한 경우에 있어서 대부분의 산모가 모유 부족 원인을 잘 모르고 있었다고 하였으며 산후 조리부족이나 산모의 체질이 허약하고 산후의 통증이나 정신적인 불안함도 젖 분비를 감소시키는데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김(1979)의 연구에서도 모유 분비 부족 원인은 임신중 유즙 분비 촉진을 위한 지식 부족과 모유를 꼭 먹이겠다는 엄마의 의지 결여가 중요한 이유라고 하였다.

이 외에 '남 앞에서 모유를 먹이는 것이 부끄럽다'도 많은 비율을 차지 하였고 모유 수유할 자신이 없거나 사회 활동에 제한이 많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경우도 많았다(Eastham,1976).

더우기 김(1979)의 연구를 살펴보면 요즘은 우유를 쉽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구태여 모유를 줄 필요가 없고 모유 영양이 아기에게는 좋을지 모르나 엄마로서는 자기 희생이라는 반응을 보여 최근 모유 수유에 대한 변화된 사고 방식의 일면을 보여 주고 있다.

한편 미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신(1985)의 연구 보고에 의하면 향후 모유 수유 희망률은 57.8%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으며, 반면에 모유 수유 광경을 볼 기회가 있거나 영아를 안아 준 경험이 많고 그 느낌이 사랑스러운 집단에서는 향후 모유 수유 희망률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여대 졸업생의 경우는 여고 졸업생에 비해 향후 모유 수유 희망율이 높게 나타나기는 하였으나 구미 선진국의 모유 수유 희망율과 비교시 상당히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더구나 모유 수유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비율과 향후 모유 수유 희망율을 비교한 결과 본인의 향후 영아 영양 방법으로는 모유 수유를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은 차이는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한 고(1980)와 남(1984)의 연구 결과에서 입증되어 모유 수유에 대한 인식정도와 모유 수유 실천과는 거리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한국과 미국 어머니들의 수유방법 선택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한국 어머니들은 인공 영양법을 많이 선택하지만 미국 어머니들은 모유 수유에 많은 비중을 두었고, 수유 간격에 있어서는 규칙적인 방법을 택한 한국 어머니들에 비해 미국 어머니들은 아기가 원할 때마다 주는 방법을 선택하였다(조,1983).

송(1989), Jones & Balsey(1977)는 과거에 모유 수유 경험이 있는 여성일수록 그 다음 아기에게도 모유 수유할 확률이 높다고 하여 영아 수유 형태란 한번 정해지면 다음 수유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조(1990)는 산모가 출산 후 영아에게 모유 수유를 하는 행위는 산후에 즉각적으로 결정되기 보다는 임신중에 모유 수유에 대한 지지적인 교육을 받는 기회를 통하여 모유 수유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변화가 초래되었을 때 비로소 모유 수유를 하려는 태도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Ⅲ. 연구 방법

본 연구는 1953년 William Stephenson에 의해 창안

되어 김(1990)과 Dennis(1986)등에 의해 국내에 소개된 Q-방법론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2. 표집방법

1) 자료의 수집

본 연구의 Q-population은 모유 수유와 관련된 전문 서적이거나 선행 논문, 잡지, 기타 홍보물등의 자료와 모유 수유에 대한 일반인, 전문가, 임부들의 개인적인 생

<표 1> Q-sample 항목

1. 모유 수유를 함으로써 엄마라는 느낌을 갖는다.
2. 여성 최고의 특권이라고 생각한다.
3. 모유는 어머니로서 자기 희생이다.
4. 모유를 먹이면 유방이 미워진다.
5. 모유를 먹이는 것 자체가 번거롭다.
6. 모유는 소독할 필요가 없으므로 시간이 절약된다.
7. 모유는 경제적으로 돈이 절약된다.
8. 모유 수유는 일정 기간 동안 자연적으로 피임 효과가 있다.
9. 모유 수유는 임신 전 상태로의 회복을 촉진시켜 준다.
10. 모유는 때와 장소에 관계없이 언제나 먹일 수 있어 편리하다.
11. 엄마로서 당연한 도리이다.
12. 모유는 인공 분유보다 영양결핍이 적다.
13. 모유는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준다.
14. 모유는 소화가 잘 된다.
15. 인공 우유를 먹는 아기보다 엄마와의 애착 정도가 더 깊다.
16. 주위의 아기 엄마들이 대부분 모유를 먹이는 것 같다.
17. 유방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아기에게 젖을 먹이는 것이다.
18. 아기에게 젖 먹이는 모습이 아름다와 보였다.
19. 모유 대신 우유를 먹는 아기를 보면 가엽게 느껴진다.
20. 남 앞에서 모유를 먹이기가 부끄럽다.
21. 우유도 모유 성분과 거의 흡사하게 만들어져 있다.
22. 모유는 하나님께서 여성에게만 주신 선물이다.
23. 여성이 사회 활동을 하려면 모유는 불편하다.
24. 젖 만으로는 영양이 불충분하다.
25. 산모로 하여금 성취감을 느끼게 한다.
26. 모유 수유는 산모의 에너지 소모가 커서 산모의 건강을 해치기 쉽다.
27. 젖 먹이는 모습을 보면 웬지 시대에 뒤떨어진 느낌이 든다.
28. 요즘은 대부분이 우유를 먹여 키우는 것 같다.
29. 직장 때문에 어차피 우유를 먹게 될 것이므로 처음부터 우유를 먹이는 것이 좋다.
30. 모유에 대한 홍보를 듣고 난 후 모유의 우수성에 대해 확신을 갖게 되었다.
31. 모유를 먹이지 않음으로 인해 아이에게 정서적 결핍이 생긴다.
32. 사회의 문제아를 줄이려면 우선 어렸을 때부터 모유를 먹여야 한다.
33. 모유를 먹이는 것보다 우유를 먹이는 것이 세련되어 보인다.
34. 모유는 자기 자식에 대한 최초의 사랑의 표현이다.
35. 병원에서 모유에 대해 별로 강조하지 않는 걸 보면 우유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다.
36. 모유를 먹이는 느낌이 어떤지 알고 싶어 먹이고자 한다.
37. 남편에게 모유 먹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38. 시어머니와 친정 어머니의 권유로 모유를 먹이게 될 것 같다.

각을 면담을 통해 조사되었으며 총 105개가 수집되었다.

이 자료들을 간호학 전공 교수 1인과 간호학 석사 2명의 조언을 얻어 내용의 중복 여부 및 표현의 명확성등을 고려하여 수정한 결과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은 38개의 Q-sample이 추출되었다(표 1 참조).

연구 대상은 1993년 3월 부터 8월 사이 서울특별시내 일개 대학 부속 병원 산부인과 외래에 내원한 임부로 특별한 합병증이 없고 Q-sample의 내용을 이해하고 분류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60명의 임부였으며 특별한 합병증이 없는 임부들로 제한한 이유는 임부의 내외과적 문제가 분만 후 모유 수유 선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되었기 때문이다.

60명 응답자의 자료 수집용 용지를 검토하여 답변이 충분치 못한 것을 제외한 결과 최종적으로 28명이 선택되었다.

2) 자료의 분석

P-표본으로 표집된 28명에 대한 조사가 완료된 후 수집된 자료를 코딩하여 컴퓨터에 data file로 입력시켰다. 자료 분석은 PC의 Quanal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처리하였으며 Q-요인 분석(Q-factor analysis)은 주요인 분석(principal component factor analysis)방법을 이용하였다.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요인수의 결정을 위해 Eigen value 1.0 이상을 기준으로 선택하였으며 그 결과 3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IV. 결과의 분석

1. Q-유형의 형성

Q-요인 분석 결과로 얻어진 3개의 유형은 전체 변량의 57.5%를 설명하고 있다.

<표 2> 유형별 Eigen value 와 변량의 백분율

	유형 1	유형 2	유형 3
아이젠치	11.6261	2.6995	1.7602
변량의 %	.4152	.0964	.0629
누적 빈도	.4152	.5116	.5745

유형 1과 유형 2의 상관 관계는 .496이며, 유형 1과 유형 3은 .600이고, 유형 2와 유형 3의 상관 관계는 .495로 나타났다.

각 요인별 설명력을 보면 유형 1은 41.5%, 유형 2는 6%, 유형 3은 6.3%로 나타났다(표 2 참조). 세 유형의 상관 관계는 다음과 같다(표 3 참조).

<표 3> 유형별 상관 관계

	유형 1	유형 2	유형 3
유형 1	1.000		
유형 2	.496	1.000	
유형 3	.600	.495	1.000

이들 각 유형에 분류된 임부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인자가중치는 표 4와 같다.

2. 유형별 분석

1) 유형 1 : 모성본능 추구형

모성본능 추구형에 속한 임부는 모두 9명으로 이들의 인구사회학적인 특성은 표 5와 같다.

유형 1의 인구사회학적 측면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성은 경산모일 경우 첫아이에게 모두 모유 수유한 경험이 있으며 유형 1의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주고 있는 인자가중치가 높은 순위는 VAR 4,18,27의 임부로서 모두 경산모이고 첫아이에게 모유 수유한 경험이 있으며 성장기 거주지역이 소도시나 농어촌이었다. 또한 다른 유형에 비해 직업이 없는 경우가 9명중 7명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유형 1이 강한 긍정적 동의를 보인 진술 항목을 보면 '모유는 자기 자식에 대한 최초의 사랑의 표현이다'(표준 점수+1.94), '인공 우유를 먹는 아기보다 엄마와의 애착 정도가 더 깊다'(1.88), '모유 수유를 함으로써 엄마라는 느낌을 갖는다'(1.70), '엄마로서의 당연한 도리이다'(1.5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강한 부정적 동의를 보인 항목으로는 '모유를 먹이는 것보다 우유를 먹이는 것이 세련되어 보인다'(-2.11), '젖 먹이는 모습을 보면 웬지 시대에 뒤떨어진 느낌이 든다'(-1.70), '모유를 먹이는 것 자체가 번거롭다'(-1.50), '모유를 먹이면 유방이 미워진다'(-1.49) 등의 순이었다(표 6 참조). 이런 점에서 유형 1에 속한 임부들은 모유 수유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며 여성의 역할 중 가장 의미있는 일이자 자식에 대해 가장 숭고하고 아름다운 행위로 인식하고 있었다.

<표 4> P-표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인자 가중치

순 위	연 구 대상자 번 호	직업	학 력	가 족 구 조	출 산 경 험	모유 수유 경험	수유 교육 경험	성장기 거 주 지 역	인 자 가중치	
1	VAR 4	유	대	줄	핵가족	경산	유	유	소도시	1.9086
2	VAR 18	무	고	줄	핵가족	경산	유	유	농어촌	1.9016
3	VAR 27	무	고	줄	핵가족	경산	유	유	소도시	1.5518
4	VAR 22	무	고	줄	핵가족	초산	무	무	대도시	1.5355
5	VAR 17	무	대	줄	핵가족	초산	무	무	대도시	1.3856
6	VAR 3	무	대	줄	핵가족	경산	유	유	소도시	.9887
7	VAR 26	무	대학원		핵가족	초산	무	무	대도시	.9642
8	VAR 2	유	중	줄	대가족	경산	유	유	농어촌	.8861
9	VAR 7	무	고	줄	핵가족	초산	무	무	대도시	.6771
1	VAR 13	무	대	줄	대가족	초산	무	무	대도시	6.4549
2	VAR 20	무	대	줄	핵가족	초산	무	유	대도시	5.3832
3	VAR 11	무	고	줄	핵가족	초산	무	무	소도시	1.3780
4	VAR 24	무	대	줄	대가족	경산	유	무	대도시	1.1144
5	VAR 16	무	대	줄	핵가족	경산	유	무	대도시	1.0640
6	VAR 12	무	고	줄	핵가족	경산	무	무	대도시	.8328
7	VAR 14	무	고	줄	핵가족	경산	유	무	소도시	.7133
8	VAR 9	유	고	줄	대가족	초산	무	무	대도시	.6689
9	VAR 1	무	고	줄	대가족	초산	무	무	대도시	.6026
10	VAR 19	무	고	줄	대가족	초산	무	유	농어촌	.5647
11	VAR 28	유	대학원		핵가족	초산	무	무	대도시	.5594
12	VAR 8	무	고	줄	핵가족	경산	무	유	대도시	.4935
1	VAR 23	유	고	줄	핵가족	초산	무	무	대도시	1.6948
2	VAR 10	무	대	줄	핵가족	초산	무	유	대도시	1.5751
3	VAR 6	유	대	줄	대가족	초산	무	무	대도시	.9686
4	VAR 21	무	대	줄	대가족	초산	무	유	대도시	.8072
5	VAR 5	유	대	줄	핵가족	경산	무	유	대도시	.6621
6	VAR 25	유	고	줄	핵가족	초산	무	유	대도시	.4980
7	VAR 15	무	고	줄	핵가족	초산	무	무	농어촌	.4502

<표 5> 유형 I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순 위	연 구 대상자 번 호	직업	학 력	가 족 구 조	출 산 경 험	모유 수유 경험	수유 교육 경험	성장기 거 주 지 역	인 자 가중치	
1	VAR 4	유	대	줄	핵가족	경산	유	유	소도시	1.9086
2	VAR 18	무	고	줄	핵가족	경산	유	유	농어촌	1.9016
3	VAR 27	무	고	줄	핵가족	경산	유	유	소도시	1.5518
4	VAR 22	무	고	줄	핵가족	초산	무	무	대도시	1.5355
5	VAR 17	무	대	줄	핵가족	초산	무	무	대도시	1.3856
6	VAR 3	무	대	줄	핵가족	경산	유	유	소도시	.9887
7	VAR 26	무	대학원		핵가족	초산	무	무	대도시	.9642
8	VAR 2	유	중	줄	대가족	경산	유	유	농어촌	.8861
9	VAR 7	무	고	줄	핵가족	초산	무	무	대도시	.6771

〈표 6〉 모성본능 추구형이 강하게 동의하거나 반대하는 진술문

진술문	표준점수
34. 모유는 자기 자식에 대한 최초의 사랑의 표현이다.	1.94
15. 인공 우유를 먹는 아기보다 엄마와의 애착 정도가 더 깊다.	1.88
1. 모유 수유를 함으로써 엄마라는 느낌을 갖는다.	1.70
11. 엄마로서의 당연한 도리이다.	1.56
31. 모유를 먹이지 않음으로 인해 아이에게 정서적 결핍이 생긴다.	1.40
2. 여성 최고의 특권이라고 생각한다.	1.09
13. 모유는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준다.	1.00
24. 젖 만으로는 영양이 불충분하다.	-1.00
16. 주위의 아기 엄마들이 대부분 모유를 먹이는 것 같다.	-1.07
26. 모유 수유는 산모의 에너지 소모가 커서 산모의 건강을 해치기 쉽다.	-1.19
4. 모유를 먹이면 유방이 미워진다.	-1.49
5. 모유를 먹이는 것 자체가 번거롭다.	-1.50
27. 젖 먹이는 모습을 보면 웬지 시대에 뒤떨어진 느낌이 든다.	-1.70
33. 모유를 먹이는 것보다 우유를 먹이는 것이 세련되어 보인다.	-2.11

이와 같은 특성은 표 7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유형 1 이 나머지 다른 유형에 비해 동의의 정도가 높거나 낮게 나타난 항목들에서 확실히 나타나고 있는데 유형 1이 다른 유형에 비해 긍정적 동의의도가 높아 모유 수유에 대한 태도상의 차이가 가장 큰 항목을 보면 ‘모유를 먹이지 않음으로 인해 아이에게 정서적 결핍이 생긴다’(차이 +2.538)이며 그 다음으로는 ‘사회의 문제아를 줄이려면 우선 어렸을 때부터 모유를 먹여야 한다’(+1.692), ‘모유

는 자기 자식에 대한 최초의 사랑의 표현이다’(+1.387) 순이었다.

반면 모성본능 추구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낮게 동의한 항목(부정적 동의를 높게 보인 항목)은 ‘모유를 먹이는 것 자체가 번거롭다’(차이 -1.390), ‘모유를 먹이면 유방이 미워진다’(-1.354), ‘모유 수유는 임신 전 상태로의 회복을 촉진시켜 준다’(-1.164) 순으로 제시되었다.

〈표 7〉 모성본능 추구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높거나 낮게 동의한 진술문

진술문	표준점수	기타 유형의 평균 표준점수	차이
31. 모유를 먹이지 않음으로 인해 아이에게 정서적 결핍이 생긴다.	1.404	-1.135	2.538
32. 사회의 문제아를 줄이려면 우선 어렸을 때부터 모유를 먹여야 한다.	.377	-1.315	1.692
34. 모유는 자기 자식에 대한 최초의 사랑의 표현이다.	1.941	.554	1.387
18. 아기에게 젖 먹이는 모습이 아름다와 보였다.	.873	.018	.856
25. 산모로 하여금 성취감을 느끼게 한다.	.572	-.087	.658
22. 모유는 하나님이 여성에게만 주신 선물이다.	.952	.342	.610
2. 모유는 인공분유보다 영양 결핍이 적다.	-.228	.598	-.827
8. 모유 수유는 일정 기간 동안 자연적으로 피임 효과가 있다.	-.414	.479	-.893
13. 모유는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준다.	1.001	1.944	-.943
9. 모유 수유는 임신 전 상태로의 회복을 촉진시켜 준다.	-.111	1.053	-1.164
4. 모유를 먹이면 유방이 미워진다.	-1.489	-.135	-1.354
5. 모유를 먹이는 것 자체가 번거롭다.	-1.497	-.107	-1.390

이같은 결과에서 유형 1에 속한 임부들은 아이를 위해서는 모유 수유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엄마의 희생이나 모유 수유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등은 별로 염두에 두지 않았고 오히려 모유 수유를 함으로써 생기는 어려움을 문제시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강한 부정을 하고 있었다.

유형 1의 특징은 이 유형에 속한 임부들이 가장 찬성하는 항목과 가장 반대하는 항목에 대한 선택 이유를 제시함으로써 보다 명확해진다.

모성본능 추구형에 속한 임부 중 인자가중치가 가장 높게 나타난 VAR 4의 임부는 가장 찬성하는 항목에 대한 선택 이유로는 “모유 수유는 본능적인 애정 표현인 것 같다”라고 하였으며, VAR 18의 임부는 “모유 수유는 엄마의 당연한 도리이다”라고 답변하였다. 또 가장 반대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모유를 먹이는 것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다”, “번거롭게 생각하는 것이 이상하다”라고 응답하였다. 즉 엄마로서 모유 수유를 하

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더이상 말할 나위 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진술한 내용을 토대로 유형 1을 명명함에 있어서는 모성 본능형, 자연적 도리형, 모유 예찬주의자, 모유 지지주의, 자연주의 추구형, 절대적 모유선택형 등의 표현이 간호사 및 간호학과 학생등에 의해 제안되었으며 유형 1에 속한 임부들의 태도 유형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최종적으로 ‘모성본능 추구형’으로 명명하였다.

2) 유형 2 : 합리 추구형

합리 추구형에 속한 임부는 모두 12명으로 이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8과 같다.

유형 2의 인구사회학적 특징은 성장기 거주지역이 대도시인 임부가 9명으로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모유 수유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경험은 12명의 임부 중 3명으로 다른 유형에 비해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표 8〉 유형 2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순 위	연구 대상자 번호	직업	학 력	가 족 구 조	출 산 경 험	모유 수유 경험	수유 교육 경험	성장기 거 주 지 역	인 자 가중치
1	VAR 13	무	대 졸	대가족	초산	무	무	대도시	6.4549
2	VAR 20	무	대 졸	핵가족	초산	무	유	대도시	5.3832
3	VAR 11	무	고 졸	핵가족	초산	무	무	소도시	1.3780
4	VAR 24	무	대 졸	대가족	경산	유	무	대도시	1.1144
5	VAR 16	무	대 졸	핵가족	경산	유	무	대도시	1.0640
6	VAR 12	무	고 졸	핵가족	경산	무	무	대도시	.8328
7	VAR 14	무	고 졸	핵가족	경산	유	무	소도시	.7133
8	VAR 9	유	고 졸	대가족	초산	무	무	대도시	.6689
9	VAR 1	무	고 졸	핵가족	초산	무	무	대도시	.6026
10	VAR 19	무	고 졸	대가족	초산	무	유	농어촌	.5647
11	VAR 28	유	대학원	핵가족	초산	무	무	대도시	.5594
12	VAR 8	무	고 졸	핵가족	경산	무	유	대도시	.4935

유형 2가 강한 긍정적 동의를 보인 진술 항목을 보면 ‘모유는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준다’(표준점수 +2.22), ‘모유는 소독할 필요가 없으므로 시간이 절약된다’(+1.54), ‘모유 수유를 함으로써 엄마라는 느낌을 갖는다’(+1.51), ‘모유 수유는 임신 전 상태로의 회복을 촉진시켜 준다’(+1.51) 등의 순이었으며 반면 강한 부정적 동의를 보인 항목으로는 ‘모유를 먹이는 것보다 우유를 먹

이는 것이 새련되어 보인다’(-1.97), ‘젖 먹이는 모습을 보면 웬지 시대에 뒤떨어진 느낌이 든다’(-1.72), ‘사회의 문제아를 줄이려면 우선 어렸을 때부터 모유를 먹여야 한다’(-1.70), ‘모유를 먹이지 않음으로 인해 아이에게 정서적 결핍이 생긴다’(-1.64) 등으로 나타났다(표 9참조).

이와 같은 결과에 비추어 볼때 유형 2에 속한 임부들

유형 2의 특징은 이 유형에 속한 임부들이 가장 찬성하는 항목과 가장 반대하는 항목에 대한 선택이유를 제시함으로써 보다 명확해진다.

유형 2의 임부 중 인자가중치가 가장 높은 VAR 13의 임부는 가장 찬성하는 항목에 대한 선택 이유로 “초유가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 그래서 3개월 동안은 모유를 먹일 생각이다”라고 하였으며 VAR 20의 임부는 “모유는 아기의 건강에 유익하다”고 답변하였다. 또 가장 반대하는 항목에 대한 선택이유로는 “우유먹고 자란 아이도 괜찮던데.”, “젖 먹이는 모습이 아름답다”, “모유를 먹일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우유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하였다.

이러한 응답 내용을 토대로 합리 추구형은 모유가 업

거나 아기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과학적이고도 합리적인 근거에 준하여 모유를 선택한 것으로 보여진다.

전술한 내용을 토대로 유형 2를 명명함에 있어서는 과학적 추구형, 합리주의형, 과학적 합리주의형 등의 표현이 제안되었으며 유형 2에 속한 임부들의 태도 유형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최종적으로 ‘합리 추구형’으로 명명되었다.

3) 유형 3 : 편의 추구형

편의 추구형에 속한 임부는 모두 7명으로 이들의 인구 사회학적인 특성은 표 11과 같다.

<표 11> 유형 3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순 위	연구 대상자 번호	직업	학 력	가 족 구 조	출 산 경 험	모유 수유 경험	수유 교육 경험	성장기 거 주 지 역	인 자 가중치
1	VAR 23	유	고 졸	핵가족	초산	무	무	대도시	1.6948
2	VAR 10	무	대 졸	핵가족	초산	무	유	대도시	1.5751
3	VAR 6	유	대 졸	대가족	초산	무	무	대도시	.9686
4	VAR 21	무	대 졸	대가족	초산	무	유	대도시	.8072
5	VAR 5	유	대 졸	핵가족	경산	무	유	대도시	.6621
6	VAR 25	유	고 졸	핵가족	초산	무	유	대도시	.4980
7	VAR 15	무	고 졸	핵가족	초산	무	무	농어촌	.4502

유형 3의 인구사회학적 특징은 7명의 임부중 6명이 초산이며 성장기 거주지역이 대도시인 임부가 6명으로 86%를 차지하였고 직업이 있는 경우가 다른 유형에 비해 많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편의 추구형이 강한 긍정적 동의를 보인 항목을 보면 ‘모유 수유를 함으로써 엄마라는 느낌을 갖는다’(표준점수 +2.30)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여성 최고의 특권이 라고 생각한다’(+1.89), ‘모유는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준다’(+1.66)등의 순이었으며 반면 강한 부정적 동의를 보인 항목을 보면 ‘젖 먹이는 모습을 보면 웬지 시대에 뒤떨어진 느낌이 든다’(-1.75), ‘모유 수유는 산모의 에너지 소모가 커서 산모의 건강을 해치기 쉽다’(-1.60), ‘모유 대신 우유를 먹는 아기를 보면 가엽게 느껴진다’(-1.47)등으로 제시되었다(표 12).

이같은 결과에서 유형 3에 속한 임부들도 역시 기본적

으로는 모유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으나 환경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표 14에서 더욱 잘 나타내 주고 있는데 유형 3이 다른 유형에 비해 높거나 낮게 동의한 항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형 3이 다른 유형에 비해 높게 동의한 항목을 보면 ‘모유를 먹으면 유방이 미워진다’(차이 +1.670)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여성 최고의 특권이 라고 생각한다’(+1.460), ‘여성이 사회 활동을 하려면 모유는 불편하다’(+1.272), ‘모유를 먹이는 것 자체가 번거롭다’(+1.177)등으로 제시되었다. 반면 편의 추구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부정적 동의를 높게 한 항목은 ‘시어머니와 친정 어머니의 권유로 모유를 먹이게 될 것 같다’(-1.829)이며 ‘모유는 때와 장소에 관계없이 언제나 먹일 수 있어 편리하다’(-1.321), ‘모유는 소독 할 필요가 없으므로 시간이 절약된다’(-1.219), ‘모유 수유는 산모의

〈표 9〉 합리 추구형이 강하게 동의하거나 반대하는 진술문

진술문	표준점수
13. 모유는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준다.	2.22
6. 모유는 소독할 필요가 없으므로 시간이 절약된다.	1.54
1. 모유 수유를 함으로써 엄마라는 느낌을 갖는다.	1.51
9. 모유 수유는 임신 전 상태로의 회복을 촉진시켜 준다.	1.51
11. 엄마로서의 당연한 도리이다.	1.40
15. 인공 우유를 먹는 아기보다 엄마와의 애착 정도가 더 깊다.	1.26
14. 모유는 소화가 잘 된다.	1.20
19. 모유 대신 우유를 먹는 아기를 보면 가엽게 느껴진다.	-1.11
17. 유방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아기에게 젖을 먹이는 것이다.	-1.22
31. 모유를 먹이지 않음으로 인해 아이에게 정서적 결핍이 생긴다.	-1.64
32. 사회의 문제아를 줄이려면 우선 어렸을 때부터 모유를 먹여야 한다.	-1.70
27. 젖 먹이는 모습을 보면 웬지 시대에 뒤떨어진 느낌이 든다.	-1.72
33. 모유를 먹이는 것보다 우유를 먹이는 것이 세련되어 보인다.	-1.97

은 유형 1에 속한 임부들과 마찬가지로 모유 수유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으나 그 이유가 본능적이거나 감정적인 것보다는 과학적인 근거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이들의 특성은 표 10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유형 2가 나머지 다른 유형에 비해 동의 정도가 높거나 낮게 나타난 항목들에서 명확히 나타나고 있는데 유형 2가 다른 유형에 비해 높게 동의한 항목을 보면 '모유는 소독할 필요가 없으므로 시간이 절약된다'(차이 +1.748)이

며 그 다음으로는 '모유 수유는 산모의 에너지 소모가 커서 산모의 건강을 해치기 쉽다'(1.517), '모유는 때와 장소에 관계없이 언제나 먹일 수 있어 편리하다(+1.362) 등이었다. 반면 합리 추구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부정적 동의를 높게 한 항목은 '모유를 먹이지 않음으로 인해 아이에게 정서적 결핍이 생긴다'(-2.022), '여성 최고의 특권이라고 생각한다'(-1.715), '유방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아기에게 젖을 먹이는 것이다'(-1.617)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0〉 합리 추구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높거나 낮게 동의한 진술문

진술문	표준점수	기타 유형의 평균 표준점수	차이
6. 모유는 소독할 필요가 없으므로 시간이 절약된다.	1.544	-.204	1.748
26. 모유 수유는 산모의 에너지 소모가 커서 산모의 건강을 해치기 쉽다.	.126	-1.391	1.517
10. 모유는 때와 장소에 관계없이 언제나 먹일 수 있어 편리하다.	.847	-.515	1.362
9. 모유 수유는 임신 전 상태로의 회복을 촉진시켜 준다.	1.509	.243	1.266
38. 시어머니와 친정 어머니의 권유로 모유를 먹이게 될 것 같다.	.576	-.652	1.228
13. 모유는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준다.	2.223	1.332	.891
23. 여성이 사회 활동을 하려면 모유는 불편하다.	-.423	.456	-.880
18. 아기에게 젖 먹이는 모습이 아름다와 보였다.	-.520	.715	-1.235
32. 사회의 문제아를 줄이려면 우선 어렸을 때부터 모유를 먹여야 한다.	-1.697	-.278	-1.419
17. 유방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아기에게 젖을 먹이는 것이다.	-1.222	.395	-1.617
2. 여성 최고의 특권이라고 생각한다.	-.226	1.489	-1.715
31. 모유를 먹이지 않음으로 인해 아이에게 정서적 결핍이 생긴다.	-1.636	.385	-2.022

<표 12> 편의 추구형이 강하게 동의하거나 반대하는 진술문

진술문	표준점수
1. 모유 수유를 함으로써 엄마라는 느낌을 갖는다.	2.30
2. 여성 최고의 특권이라고 생각한다.	1.89
13. 모유는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준다.	1.66
15. 인공 우유를 먹는 아기보다 엄마와의 애착 정도가 더 깊다.	1.62
11. 엄마로서의 당연한 도리이다.	1.30
23. 여성이 사회 활동을 하려면 모유는 불편하다.	1.01
14. 모유는 소화가 잘 된다.	.88
8. 모유 수유는 일정 기간 동안 자연적으로 피임 효과가 있다.	.85
32. 사회의 문제아를 줄이려면 우선 어렸을 때부터 모유를 먹어야 한다.	-.93
10. 모유는 때와 장소에 관계없이 언제나 먹일 수 있어 편리하다.	-.94
29. 직장 때문에 어차피 우유를 먹게 될 것이므로 처음부터 우유를 먹이는 것이 좋다.	-.95
33. 모유를 먹이는 것보다 우유를 먹이는 것이 세련되어 보인다.	-.99
38. 시어머니와 친정 어머니의 권유로 모유를 먹이게 될 것 같다.	-1.46
19. 모유 대신 우유를 먹는 아기를 보면 가엽게 느껴진다.	-1.47
26. 모유 수유는 산모의 에너지 소모가 커서 산모의 건강을 해치기 쉽다.	-1.60
27. 젖 먹이는 모습을 보면 웬지 시대에 뒤떨어진 느낌이 든다.	-1.75

<표 13> 편의 추구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높거나 낮게 동의한 진술문

진술문	표준점수	기타 유형의 평균 표준점수	차이
4. 모유를 먹이면 유방이 미워진다.	.527	-1.143	1.670
2. 여성 최고의 특권이라고 생각한다.	1.891	-.431	1.460
23. 여성이 사회 활동을 하려면 모유는 불편하다.	1.011	-.261	1.272
5. 모유를 먹이는 것 자체가 번거롭다.	.215	-.962	1.177
17. 유방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아기에게 젖을 주는 것이다.	.634	-.534	1.168
33. 모유를 먹이는 것보다 우유를 먹이는 것이 세련되어 보인다.	-.993	-2.037	1.044
36. 모유를 먹이는 느낌이 어떤지 알고 싶어 먹이고자 한다.	-.768	-.084	-.684
37. 남편에게 모유 먹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725	.320	-1.045
26. 모유 수유는 산모의 에너지 소모가 커서 산모의 건강을 해치기 쉽다.	-1.595	-.530	-1.065
6. 모유는 소독할 필요가 없으므로 시간이 절약된다.	-.434	.785	-1.219
10. 모유는 때와 장소에 관계없이 언제나 먹일 수 있어 편리하다.	-.942	.379	-1.321
38. 시어머니와 친정 어머니의 권유로 모유를 먹이게 될 것 같다.	-1.462	.367	-1.829

에너지 소모가 커서 산모의 건강을 해치기 쉽다'(-1.065)등의 순이었다.

유형 3의 특징은 이 유형에 속한 임부들이 가장 찬성하는 항목과 가장 반대하는 항목에 대한 선택 이유를 제시함으로써 보다 명확해 진다.

편의 추구형의 임부 중 인자가중치가 높은 VAR 23과 VAR 10, VAR 6의 임부는 가장 찬성하는 항목에 대한 선택이유를 “여자들의 특권이고 젖을 먹일때 자기의 아기라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된다”, “여성이라는 자긍심

과 모정때문에”, “아기에게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게 하고 엄마의 정을 줄 수 있지만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못 먹이게 될 것이다”라고 답변하였다.

또 가장 반대하는 항목에 대한 선택 이유는 “타인의 권유가 아니라 내가 먹고 싶은 것이다”, “모유 수유의 어려움보다는 자기 관리와 시간 사용에 제약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산후 휴가기간도 있어 그 기간만 모유를 먹일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같은 결과에 준하여 본다면 유형 3의 임부는 모유

수유가 좋기는 하나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상황에 따라서는 먹일 수도 있고 안 먹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모유를 못 먹인다 하더라도 그 이유때문에 아기의 건강을 해친다고는 생각지 않았다. 또한 유형 3의 임부 중 절반 이상이 직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환경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도 사료된다.

유형 3을 명명함에 있어서는 실용 추구형, 상황 선택형, 선택적 추구형등의 표현이 제안되었으며 유형 3에 속한 임부들의 태도 유형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최종적으로 '편의 추구형'으로 명명되었다.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모유 수유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의 모유 수유율은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이같은 현상은 여러가지 요인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특히 모유 수유에 대한 임부의 태도나 신념은 더욱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더구나 모유 수유에 대한 의사 결정 시기가 대부분 임신 전이나 임신 초기에 이루어진다고 하였으므로 산전 관리 기간 동안 모유 수유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은 절실하다고 하겠다.

이에 본 연구자는 모유 수유에 대한 임부들의 태도 유형에 따른 개별화된 간호 중재 개발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인간의 주관성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Q-방법론을 이용하여 임부들의 태도 유형을 분석하고 아울러 각 유형의 특성에 따라 모유 수유 권장을 위한 교육 전략을 제시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Q-방법론을 통한 구체적인 연구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Concourse(Q-모집단)는 모유 수유와 관련된 전문 서적이거나 선행 논문, 기타 홍보물과 일반인, 전문인, 임부들을 대상으로 면담 조사하였으며 총 105개가 수집되었다.

둘째, 수집된 105개의 진술문 중 내용의 중복성과 표현의 명확성등을 고려하여 수정한 결과 최종적으로 38개의 Q-sample이 추출되었다.

셋째, P-표본은 정기 검진을 위해 산부인과 외래를 방문한 임부 60명을 편의 표집 방법으로 선정하였다.

넷째, 38개의 진술문을 60명의 임부들로 하여금 강제 정상 분포가 되도록 각자 의견의 중요도를 9점 척도

상에 Q-분류하도록 하였다. 이중 28명의 자료를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다섯째, 분류된 결과를 PC QUNAL Program으로 Q-요인 분석 하였다.

연구 결과 3개의 유형을 발견하였다.

유형 1은 모성본능 추구형으로 모유 수유는 아기나 엄마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며 엄마의 도리로는 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모유 수유 행위를 여성의 역할 중 가장 의미있는 일로 받아들이고 있었으며 엄마의 희생이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오히려 모유 수유를 함으로써 생기는 어려움을 문제시하거나 엄마의 이기적인 태도로 인해 모유 수유를 기피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강한 부정을 하고 있었다.

유형 2는 합리 추구형으로 모유의 과학적인 장점이나 모유 수유가 아기나 엄마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들을 고려하여 모유 수유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능적이거나 감정적이기 보다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의 결과라 생각되어 진다.

유형 3은 편의 추구형으로 모유에 대한 장점과 엄마된 도리로서 모유 수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처해진 환경과 상황에 대해서는 가변적 사고의 경향이 있었다. 특히 이 유형에 속한 임부들은 다른 유형의 임부들에 비해 직업을 가진 비율이 높았던 특성으로 보아 환경으로 인한 장애가 모유 수유를 시도하는데 있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3. 제언

1) Q-방법론을 사용하여 임부의 남편을 대상으로 모유 수유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2) 임부와 남편의 모유 수유에 대한 태도의 일치 여부를 규명하는 연구가 이루어 질것을 제언한다.

참 고 문 헌

- 가족계획연구원(1977). 1974년 한국 출산력 조사.
 고명숙(1980). 수유부와 비수유부의 자녀 양육에 대한 비교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김성택(1979). 우리나라 영유아의 영양법 경향에 대한 조사 연구. 소아과, 22(5), 1-13.
 김승조(1990). 모유 수유의 장애 요인 및 대책. 모유 권

- 장 대책 토론회.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 김신정(1989). 산후 어머니로서의 적응과 모유 수유 실천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충희(1984). 1세 이하 영유아의 수유실태에 관한 조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홍규(1990). Q-방법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강의교재.
- 김화숙(1991). 모유 수유를 시도했던 초산부의 모유 수유 지속 요인 분석.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 남철현(1984). 모유수유 실천을 위한 교육홍보. 한국보건교육학회지, 2(1), 133~139.
- 박명운(1981). 농촌 가정보건을 위한 통합지도자료. 대한보건협회지, 17(2), 100.
- 박옥희, 권인수(1991). 산후 경과별 모유 수유 실태. 모자간호학회지, 1(1), 45-58
- 박인화(1982). 모유 대체 식품 판매에 대한 우리나라 현황 및 국제동향. 영양연찬회보고서. 한국인구보건연구원.
- 박태근(1983). 모자보건학. 서울 : 연세대학교 출판부.
- 방매륜(1984). 출산에 관한 한국의 전통문화가 모유 수유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성유희(1979). 모유수유 실태에 대한 조사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 송규희(1989). 서울 시내 일부 병원에 내원한 임신부들의 모유 수유에 관한 태도 및 지식.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신선숙(1985). 영아 영양에 대한 태도와 태도형성에 관련된 요인 분석.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이경혜(1992). 국내 모유수유의 실태. 생활간호, 12, 114-116.
- 이민숙(1984). 여고생의 모유 수유와 인공 수유에 대한 인식 조사 연구. 석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대학원.
- 정귀영, 이근(1983). 모유 실패의 원인. 소아과, 26(6), 527-533.
- 정우식, 엄홍인, 남병도, 이정희, 김규택(1982). 인공 수유를 하게 된 동기에 관한 관찰. 소아과, 25(10), 1046-1052.
- 조결자(1983). 한국과 미국 어머니들의 산전 간호와 육아에 대한 관심도 현황의 비교 관찰. 소아과, 26(3), 247-255.
- 조미영(1990). 모유 수유를 저해하는 요인과 모유 수유 권장을 위한 방안. 모유건강대책토론회.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 한경자(1992). 모유 수유의 권장 방안. 생활간호, 12, 117-120.
- 한국 인구 보건 연구원(1982). 1982년 전국 가족 보건 실태 조사.
- 한국 인구 보건 연구원(1983). 모유 수유 실천 양상과 유아기 건강.
- 홍대식(1982). 내원 환아 및 육아 상담아의 수유 실태에 관한 조사. 소아과, 25(4), 27-34.
- Armond, S. G. (1981). Human Milk. Leukocytes and Immunity. Pediatrics, 90, 167-168.
- Baer, E. C. (1981). Promoting Breast Feeding : A National Responsibility. Studies in F. P., 12(4), 198-199.
- Berg, A. (1973). The Nutrition Factors : Its Role National Development. Brooking. Institute Washington, 89.
- Brown, B. D. (1985). Breast-Milk Jaundice. JOGNN, May / June, 220-223.
- Cameron, M. & Hofvander, Y. (1976). Manual on Feeding Infant & Young Children(2nd edi.). New York : protein-calories Advisory Group of the United Nations System.
- Cunningham, A. S. (1979). Morbidity in Breast-fed & Artificially fed Infants(II). The Journal of Pediatrics, 95(5), 685-689.
- Dennis, K. E. (1986). Q Methodology : Relevance and Application to Nursing Research. Advances in Nursing Science, 8(3), 6-17.
- Eastham, E., Smith, D. & Poole, D. and Neligam, G. (1976). Futher Decline of Breastfeeding. British Medical journal, 1, 305.
- Ebrahim, G. J. (1979). Breast Feeding - the Biological Option. MacMillan Co. 74-84.
- Ellis, D. J. (1983). Secondary School Student's Attitude and Belief about Breastfeeding. JOSH, 53(10), 600.
- Fallot, M. E. & Oski, F. A. (1980). Breast feeding reduces incidence of hospital admission for in-

- fection in infants. Pediatrics, 65, 1121–1924.
- Forman, S. J. (1974). Infant Nutrition. Philadelphia W. B. 2. 1–9.
- Hall, L. A. (1980). Effect of Teaching on Primiparous. Perception of Their Newborn. NU, 29 (50), 312–317.
- Henderson, K. J. (1978). Helping Nursing Mothers Maintain Lactation while Separated from Their Infants. MCN, Nov/Dec, 352–356.
- Isbister, C. (1974). Breast Feeding and Pediatrician. Pediatrics, 10, 69–74.
- Janice, H. M., Margaret, J. M. (1986). Minimal Breast Feeding. JOGNN, July/Aug, 333–338.
- Jones, R. A. K. & Balsey, E. M. (1977). Breastfeeding in an Inner London Bough : A Study of Cultural Factors. Soc. Sci. Med. 11, 175.
- Kenny, J. F., Boesman, M. I. and Michaels, R. H. (1967). Bacterial and Viral Coproantibodies in Breast-fed Infants. Pediatrics, 39, 202.
- Klaus, M. H., Kennell, J. H. (1979). Care of the Parents & Care of the High risk Neonate. Philadelphia. W. B. : Saunders Co. 147–172.
- Klaus, M. H., Kennell, J. H. (1982). Maternal Infant Bonding (2nd edi.), St. Louis : The C. V. Mosby Co.
- Mackey & Susan(1981). Infant Breast & Bottle Feeding Practices. Some Related Factors & Attitudes. Canadian Journal of Public Health, 72(5), 312–318.
- Preston, B. L. (1991). Lactation Consultation in the Neonatal Intensive Care Unit. MCN, 16, May/June, 167.
- Reeder, S. J. & Martin, L. L. (1987). Maternity Nursing (6th edi.). Philadelphia : J. B. Lippincott.
- Seehan, F. (1981). Assessing Postpartum Adjustment. JOGNN. Jan/Feb, 19.
- Sweeney, M. A. (1987). The health belief model as an explanation for breast feeding practices in a Hispanic population. ANS, 9(4), 35–50.
- Taggart, M. E. (1976). A Practical Guide to Successful Breast-feeding. Canadian Nurse, 72 (3), 25–30.
- Welsh, J. K. & May, J. T. (1979). Anti-Infection properties of Breast Milk. Pediatrics, 94, 1–9.
- WHO(1981). Contemporary Pattern of Breast-feeding : Report on the WHO Collaborative Study on Breast-feeding.
- William, C. D. & Jellife, D. B. (1972). Mother & Child health : Delivering the services. London : Oxford University Press.
- Winikoff, B. & Baer, E. C. (1980). The Obstetrician's Opportunity. Translating 'Breast is Best' from Theory into Practice. Am. J. Obstet. Gynecol, 138, 105–116.

– Abstract –

The Pattern of the Attitude of Pregnant Women on Breast Feeding

Chung, Hae Gung · Lee, Mi La***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the pattern of the pregnant women' attitude on breast feeding.

The research had been proceeded as follows :

1. Delineation of the Q-population : the statements of Q-population had been derived from review of the related literature and a open-ended questionnaire filled by nurses, nursing students, general public, and the pregnant women. Total number of concourse collected was 105.
2. Selection of the Q-sample : Among 105 concourse, those which has obscure or overlapped were deleted. 38 concourse were selected finally.

* Head Nurse, Chung Ang University Yong San Hospital.

**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Medicine, Chung Ang University

3. Selection of the P-sample : by the convenient sampling technique, 28 subjects had been determined among the pregnant women who visited a hospital affiliated with university for the antenatal care, from March to August, 1993.
4. Q-sorting : based on 1 to 9 point scale (forced normal distribution), the selected P-sample rated their operant definition of breast feeding.
5. Determination of Q-type : with Q-sorts, PC-Quan program identified the three Q-types.
6. Analysis of Q-type : the characteristics of three different attitude had been analyzed based on the typal array, extreme comments, and subject's demographic information.

The results revealed that there are three different attitudes with regard to breast feeding : Instinct oriented attitude, Science oriented attitude, and Convenience oriented attitude.

Mothers with Instinct oriented attitude and Science oriented attitude are thought to have high possibility to breastfeed their infant willingly, and mothers with Convenience oriented attitude to breast feed under the favorable conditions.

These findings can be used as the information giving data for the education to encourage breast feeding.

keyword : The Attitude of Breast Feeding